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2. 8. 4 (목)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건화물운임(BDI)

1,731.0p(-8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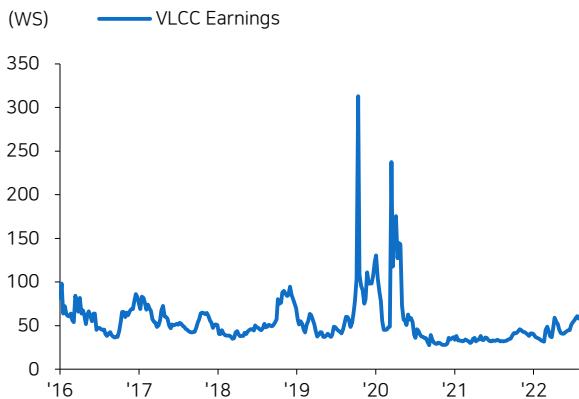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887.5p(-109.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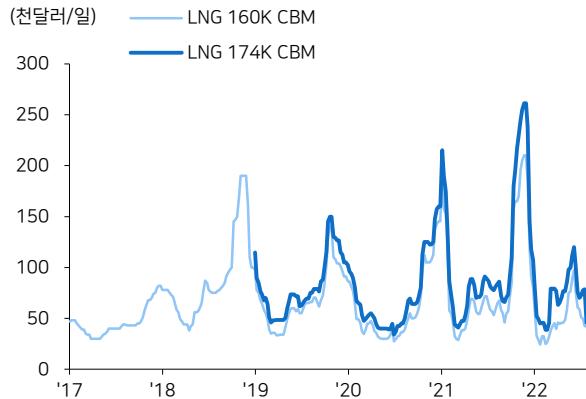
VLCC Spot Rate

57.8p(-3.0p WoW)



LNG Spot 운임

41.8p(-0.8p WoW)
45.5p(-33.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6p(+0.6p WoW)
213.1p(+2.0p WoW)



항공시장 지표

275.8p(-0.3p DoD)
88.1p(+1.2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바이든 사우디 방문했지만…OPEC+ 되레 증산 속도 대폭 줄여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에도 OPEC+는 증산 속도를 크게 줄였다고 보도됨. 9월 원유 증산량은 하루 10만배럴로 7~8월 증산량인 일일 64.8만배럴의 15%에 불과함. 미국 외환증개업체 OANDA는 현재 국제 에너지 위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평가하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연합뉴스)

Suezmax market strength helping to boost VLCC rates, says Braemar

Braemar에 따르면, 타이트한 suezmax수급이 VLCC 강세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도됨. Non-eco VLCC의 경우 가중평균한 수익이 일일 12,000달러수준인데,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임. 지난 6월초부터 상승세가 이어져옴. 중동지역의 VLCC 성약체결 증가 추이도 현재 강세에 기여함. 사우디-미국 관계가 개선되며 사우디의 7월 수출량은 5월대비 600,000BPD 증가함. 중동 항만대기시간도 증가한 바 있음. (Tradewinds)

'탈 러시아 석탄' 나선 유럽…사재기에 가격은 천정부지

유럽 각국이 '탈 러시아'를 위해 콜롬비아·호주·남아공 등에서 석탄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보도됨. 석탄 가격은 연초 톤당 134달러에서 400달러 선까지 치솟은 바 있음. 독일의 경우 지난 3~5월 호주산 수입량을 21%, 남아공 수입량 7배, 콜롬비아산 수입량을 4배 확대했다고 알려짐. 최대 발전용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유럽향 수출량이 전년대비 40배 증가했다고 언급됨. (조선Biz)

Capesize bulker routes to China fall to multi-month low as real estate sector struggles

중국 부동산경기 악화로 철광석 수입량이 감소하며 capesize 운임이 약세라고 보도됨. C14 브라질-중국 항로 운임은 수요일(3일) 10% 하락해 4월말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함. Capesize 5TC도 3개월래 최저수준으로 마감함. 한편, Baltic Exchange에 따르면 중국 수요 감소에도 Vale이 8월 하순 C3 브라질-칭다오 항로로 24달러/톤 수준에 철광석을 수송할 것으로 언급함. (Tradewinds)

International consortia in race to land major Turkish subsea contract

Turkish Petroleum의 Sakarya2 가스전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3개 컨소시엄이 경쟁 중이라고 보도됨. 5~7.5억달러 규모이며 2026년 가동 예정임. Sakarya 2는 일일 10.5억큐빅피트를 생산할 예정임. 컨소시엄은 Saipem-SIA(Subsea7)-Schlumberger, McDermott-Baker Hughes, TechnipFMC-Halliburton으로 구성됨. Phase 1을 Saipem-SIA가 수주해 이번에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짐. (Upstream)

미국, 감염자 접촉한 백신 미접종자 격리 완화…거리두기도 없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이번주 COVID-19 관련 권고사항을 완화할 예정으로 보도됨. 확진자와 접촉한 미접종자에 대한 격리 권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 타인과 최소 6피트 이상 두도록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권고하지 않기로 함. (연합뉴스)